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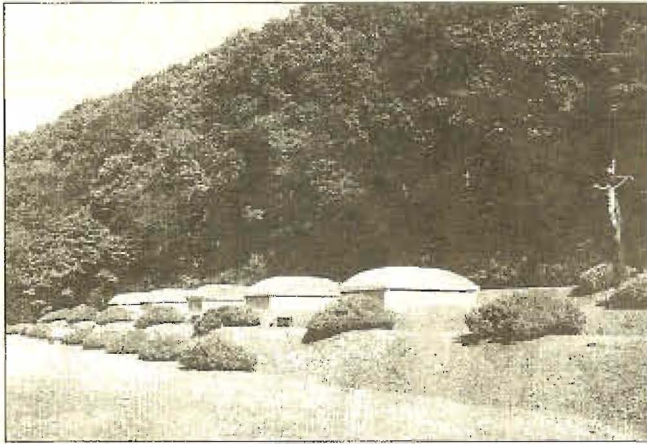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공현 대축일
제32권 7호(나해) 2012.1.8

[묵상]



한국 천주교회의 싹을 틔운 이들(이벽,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정약종)이 장든 천진암. <수원교구, 경기도 광주 우산리 소재>

떠나면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믿음의 길을 떠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빛과 함께 했기에
미지의 여정이 불안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이 찾아온 강보에 싸인 아기는
왕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모습이지만
아기 예수님의 겉모습에 전혀 실망하지 않고
준비한 보물로 왕께 대한 경배를 바칩니다.
그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었는지 모르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

다. 귀한 선물을 바쳐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믿음과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길을 밝힌 별의 인도를 믿었기에,
초라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믿었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물을 받았습니

다. 빛을 볼 줄 모르는 저희들이기에
어둠속의 길을 불안히 걷는 저희들에게,
구세주께 합당하게 드려야 할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고 있는 저희들이기에
믿음과 기쁨을 잃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메시아의 빛을 보고 먼 길을 떠날 줄 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봉헌 할 줄 아는
동방에서 온 그들이 부럽습니다. -한-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제주) M.E. Sharing(3제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 (썩수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바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이필수 (생)
주 일 낮 미사	(연) 심천유 마리아, 송기인 요셉, 유점이 베로니카, 박부원, 오진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이정기 클레멘스 & 이복래 마사 & 김홍배 루까, 박영준 안토니오, 이현호 요한, 박동욱 요셉, 장루시아, 김인숙 마리아, 송재진 루도비코, 김중환 야고보,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김완태 다미아노, 박원호, 엄은섭 도로테오 (생) 최성자 카타리나, 김기정 루치아, 이재준 요한 가정, 김현숙 세실리아, 하양숙 마틸다, 유영근 우르바노 & 유명련 마리아 가정, 최영신 프란치스코 & 이숙 클라라, 최인홍 스테파노 & 구선미 세실리아, 최우성 아오스딩 & 최준홍 요한 & 최림 안젤라, 장정진 베로니카 & 김현정 헬레나 & 진영선 크리스티나와 토런스 서3반원들, 이민상 요한 & 이순자 비비안나, 최희철 사도요한, 윤안토니오 & 윤세라피나 대자녀들, 박홍룡 요셉,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PV구역가정들, 고현용 &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박씨니 마가렛 & 민순선 사비나, 안나회동전모임 협조하신분들, 송호창 요셉 & 전하현 마리아, 김종길 마오로 & 김재희 모니카,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석순영 아네스, 송정현 올리비아 & 이승수 베드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0,1-6

화답송 ①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로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①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①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①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시나이다. ①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3,2,3-5-6

복음 ① 알렐루야.

환호송 ①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①

복음 마태오(Matthew) 2,1-12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02	102	102
봉헌	257	257	254
성체	292	289	284
파견	102	144	14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말씀의 종말론적 차원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 주신’ (요한 1,18 참조) 그분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최종적인 말씀이십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진리를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당신 아드님? 곧 둘이 아닌 오직 하나인 당신 말씀?을 주심으로써 일체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그리고 단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이니, 다시 더 말할 것을 지니지 않으신 까닭이다. (……) 옛날에는 예언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는 당신 아드님이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에 이르러 아직도 하느님께 문의한다든지 어떤 시현으로 계시를 받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마보짓을 할 뿐 아니라 하느님을 욕되게 하리니, 그리스도 하나만을 우리러보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 신기한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적 계시들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적 계시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 ‘보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에서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적 계시들의 가치는 유일한 공적 계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공적 계시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합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언어와 교회의 살아 있는 공동체의 중개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적 계시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한 기준은 그것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 그것은 분명 우리를 복음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시고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적 계시는, 유일한 공적 계시를 가리켜 보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 계시를 교회가 승인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계시의 메시지가 신앙과 윤리를 거스르는 것을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공표할 수 있고 또 신자들은 신중하게 그것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 계시는 새로운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새로운 신심 형태가 생겨나게 하거나 이전의 것들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

꿈과 자연 안에 있는 하느님의 언어

메시지를 전하는 꿈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마태 2,12) 꿈의 신성한 출처는 성경의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나타납니다. 창세기는 꿈의 요소로 가득하고, 성경은 묵시적으로 마감하는데, 묵시록은 그 자체로 완전한 환시입니다.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현시로 시작하는 몇 가지 가장 아름다운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 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창세 15,12-21) 꿈에서 요셉은 형들의 곡식 단들이 빙 둘러서서 큰절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37,5-11 참조) 시종들이 저마다 뜻이 다른 꿈을 꾸었고, 요셉은 꿈을 풀이해 줄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41,16,25 참조) 창세기에서 꿈은 하느님의 인간과의 의사소통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써 간주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선물은 꿈을 통해 왔습니다.(1열왕 3,5 참조) 또한 성경은 자주 천사의 출현을 꿈이나 환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꿈을 꾹니다.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마태 1,20; 2,13,19 참조) 후에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은 꿈을 통해 지시를 받습니다.(마태 2,12) 우리는 중요한 행동을 하는 경우 모든 결정이 꿈을 통해 하느님께서 내리신 계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연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했고 별들을 통해 메시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들려 주는 하늘의 소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화는 인간 공동체보다 더 큰 세계의 일원으로써 우리가 갖는 생득권의 일부분입니다. 도마뱀, 새, 고라니, 소나무, 바람, 또는 바위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수천 명의 새로운 친척들, 곧 야생의 매혹적인 존재를 막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새나 메뚜기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자연에 기초한 사람들은 꿈과 의사소통하지 못하거나 별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연 안에서 병어리와 장님이 되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낳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공간이 성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가십시오. 주의를 끄는 것에 초대를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방황하십시오. 그것은 덩불, 풀잎, 돌, 개미탑이 될 수도 있고 무지개나 별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가깝게 그것들을 관찰하고 일기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자연에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가장 깊은, 가장 친근한 진실을 말하십시오. 평범한 인간 언어 이외에, 노래, 시, 비언어적인 소리, 이미지, 감정, 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귀, 눈, 코, 피부, 직관, 느낌, 그리고 상상력으로 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방대한 교실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구로2동성당 주임

~ HAPPY New Year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재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요 글라라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영호 사도요한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권순길 체칠리아	이순자 비비안나
재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월

◆ 과달루페 성지 순례 : 16일(월)~19일(목)

작년 본당 설립30주년을 맞아 1년간 계속한 전신자 신구와 성경통독을 끝내고 그 은총의 여세에 힘입어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교우 32명이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의 길에 나섭니다. "...이 순례의 여정이 성모님과 성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그 발자취에 우리의 발길을 맞추어보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 순례자 안내문 : 8일(주일)부터 사무실에 비치
- 수/목요일(18일,19일) 저녁미사 없습니다.
- 사무실 Closed : 16일~19일

◆ 임진년 '설'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월23일(월)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후 세배(오전)와 떡국 나누기(오전/오후)
- 미사예물 봉헌 : 22일(주일)까지 사무실

◆ 오늘 주일은 '이주민 주간'을 맞아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지난 첫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자선헌금 대신입니다.

◆ 미시령 특선 황태 앵콜 판매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건립 기금모금을 위해 지난달에 판매했던 미시령 특선 황태를 교우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 주일 낮미사 후 한정판매 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8일) 낮미사후 친교장
- 가격 : \$40(700g 10마리)
- 수량 : 80여 팩
- 본당 ME에서 봉사하십니다.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설립

뜻있는 본당 교우가 장학기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올해부터 백삼위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 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로 교회봉사와 학교성적 우수한 학생
- 수혜인원 : 매년 8~10명
- 신청기간 : 2012년 4월1일~2012년 5월15일
- 장학금 지불일 : 2012년 8월1일 이후
- 신청서 : 2012년 2월1일부터 사무실에 비치
- 문의 : 본당 신부님

◆ 예비자 수요 교리반 개강 안내

- 개강 : 1월11일(수) 오후 8시

◆ 백삼위 성모회표김치 설맞이 파격세일!!!

- 판매일시 : 1월14/15일(토요특전, 주일미사)
- 품목 : 김치, 새우젓, 된장
- 판매에 필요한 빈병(작고/큰 김치병 등)을 수집합니다.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 ☎(310)738-4788

◆ 본당 성령기도회 모임 매주 목요일로 환원

- 일시 : 매주 목요일 8시
- 문의 :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백삼위 서예반 '서경회' 회원모집

서예에 관심있는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 모집대상 : 한글반, 예서반(한문) 사군자반
- 지도 : 박태홍(일호 : 한국예총 미주서예가협회 회장)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백삼위 라인댄스 강습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성당 강당
- 강사 : 전베로니카(가디나 한국문화회관 라인댄스 강사)
- 후원 : 사회복지분과, 성모회

◆ 친교자락(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8일(주일) : 토런스 서1반(육개장 \$3)
- 1월8일(주일학교) : 8학년(김치콩나물밥)
- 1월15일(주일) : 토런스 남1반(소고기덮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원모	김종렬	박인식	박종열	송영미	송재훈
	엄영희	오일순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석진
성전헌금	김원모	박인식	박종열	엄영희	이근모	이명자
미사헌금	이인두	장영우	전시웅	전정일	정병훈	주대중
	지경수	차인수	최수현	최태훈	한장환	홍선자
구유예물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3,190						
미사헌금 : \$4,503 구유예물 : \$580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안내

- 1월15일(주일): 마틴루터킹Jr. 기념일 연휴 수업 없습니다.
(영어 학생미사 있음)
- 문의: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김본경 올리아 한국학교 교장 ☎(310)713-2669

※ 각종 모임시 2층 각교실의 테이블/의자를 옮겨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클래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탁드립니다.

◆ '십자가의 길' 기도문 공용 비치

- 지향에 따라 주제가 다른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공용(성당 비품)으로 비치하여 두었습니다. 특히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작년에 새로 건립한 '야의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비치장소: 성모상 앞 돌의자 사물장, 사무실
- 주제: ♡성경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김수환(목상)/장익(여음) 십자가의 길 ♡청소년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새해를 맞아 성물부에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니 한번쯤 둘러주세요. 축복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문의: 김춘자 막달레나 ☎(310)539-3377

남가주 소식

◆故이태석 신부 2주기 추모미사 및 아프리카후원회 활동보고

- 일시: 1월 14일 오후 5시
- 장소: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2040 W. Artesia Bl. Torrance)
- 참석대상: 아프리카 희망후원회 회원 및 관심있는 분들
- 문의: ☎(213)249-3603 고영희 데레사

◆ 성 아그네스 성당內 이냐시오 카페 오픈

- 커피 감정사인 LA 아그네스 성당 최대제 신부가 기도와 기술을 통합시킨 커피를 만들어 냅니다. 아그네스 성당에 오시면 핸드드립 커피를 드실 수 있고 로스팅 된 원두커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문의: (323)731-4433

◆ 이냐시오 성인 영신수련 4박5일 침묵피정

- 일시: 1월11일(수)~15일(주일)
- 장소: Marywood 피정센터(오렌지카운티)
- 피정지도: 이인주 신부(예수회)
- 참가비: \$380(독방), 선착순 20명
- 주최: 미서부지역CLC(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최아우엘리아 ☎(562)233-7163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13(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14(토) 오후 7시 성당장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전향 아네스 989-0366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21(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1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1/9(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오창애 안나 974-2857 1/20(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안혜진 세레나 634-6923 1/12(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재용 안드레아 994-6782 1/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999-1448 1/13(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새라피나	1/2	유명린 마리아 985-2882	최벨라맷다 213-718-0310 1/14(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종두 요한 544-1267 1/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6(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다음 주 단체 모임

회장단 모임

오후 1시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오랜만에 ‘말씀의 이삭’란(서울대교구 주보)을 통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매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썼던 것이 1999년이니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는 몸이 건강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로 짧게 병상에 누웠던 적은 있어도 병에 걸려 입원 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병원은 저와 상관없는 별도의 공간이며 운이 나쁜 사람들이나 가는 격리된 수용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새 5년째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란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금언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된 요즈음입니다.

2008년 여름, 저는 드디어 ‘내 차례’를 맞아 암이라는 병을 선고받고 가톨릭 신자로서 앓고, 가톨릭 신자로서 절망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기도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희망을 갖는 혹독한 할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 할례식을 ‘고통의 축제’라고 명명하였으며 앞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의 이삭’란을 통해 아직도 출구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의 피정 기간 동안 느꼈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주보의 지붕 위로 올라가 외치려고 합니다.

저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불어 닥친 이 태풍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오로가 말한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적지 않은 것은 그 때문(1코린 11,30)’이라는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암의 선고는 미국작가 N.호손이 쓴 간통한 죄로 ‘A’란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여주인공의 낙인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머리를 깎은 천사와 같은 어린 환자의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남물



래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은 제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아이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요한 9,3)’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병원 안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아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 속에서 소중한 우리의 아빠, 엄마, 딸, 아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온갖 병으로 스러지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엄숙한 시간」에서 노래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 세상 속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것이다. / (...) /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 세상 속에서 까닭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덕분입니다. 우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과 주리고 목마른 사람과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울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병으로 십자가를 지고 신음하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서울대교구 주보에서)